

민주 중앙당, 전주시장 경선 결과 인준하나?

상대 후보들 이의신청 여부 · 중앙당 인준 여부 주목

더불어민주당 전주시장 경선에서 우범기 후보가 신인가짐을 받아 근소한 차이로 1위를 차지한 가운데, 지난 25일 이뤄진 우범기 예비후보와 임정엽 전주시장 출마예정자의 정책연대에서의 우 후보의 발언을 문제 삼았던 경쟁후보들의 이의제기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논란은 우범기 예비후보가 지난 25일 당내 공천과정에서 부적격자로 판정돼 컷 오프된 임정엽 전주시장 출마예정자와의 정책 연대를 선언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이날 우범기 예비후보가 임정엽 출마예정자와의 공동기자회견 자리에서 "민주당 경선에서 탈락하면 임정엽 출마예정자를 돕겠느냐"는 질문에 "모든 것을 열어놓고 있다"고 답했기 때문이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경선에서 지면 무소속 후보를 돕겠다고 해석이 되는 발언은 사실상 무소속 출마자와의 단일화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었다. 당에서 부적격자 판정을 받은 후보가 무소속으로 출마할 경우 지지하겠다는 것은 '해당행위(소속 정당에 해를

입히는 행위)'라는 것이다. 유창희 후보는 '정치 쇼를 멈춰라'며 맹비난했다. 조지훈 후보도 '명백히 해당 행위인 만큼 이 발언에 책임을 지고 사죄해야 한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낸 바 있다.

당시 우 예비후보는 "임정엽 후보와의 정책연대 기자회견은 전주대변회와 대대약을 위해 정책을 연대하고 이를 적극 실천하겠다는 것이 핵심"이라며, 순수한 정책 연대일 뿐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이와 관련된 질문은 여전히 남아 있다. 전주시에 거주하는 한 민주당 관리 당원은 "경선에서 지고 범죄 전과로

당내 경선에서 부적격자로 판정된 사람인데, 그가 무소속으로 출마할 경우에도 도울 수 있다는 발언을 한 사람이 민주당 전주시장 후보가 됐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면서 "무슨 이유인지 선거보로 녹취록 공개도 받아들이지 않는 조건을 달아 사실상 거부할 사람은 민주당 전주시장 후보가 될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논란이 일고 있는 상황에서 석패한 상대 예비후보들이 중앙당에 이의신청할 지가 초미의 관심사다. 상대후보가 이의신청을 하고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비대위가 이를 인준하면, 해당 지역은 재경선을 실시하게 된다.

/김윤상기자

'제1회 전주국제그림책도서전' 개최

전주시립도서관 일일서 5월 3~29일 진행

공공도서관과 동네책방들이 5월 한 달 간 국내외 유명 그림책을 만날 수 있는 그림책미술관으로 변신한다.

전주시는 다음 달 3일부터 29일 까지 전주시립도서관 꽃심과 금암도서관 등 전주시립도서관 일일서에서 '그림책'을 주제로 한 전시와 공연, 작가와의 만남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꾸며진 '제1회 전주국제그림책도서전'을 개최한다.

전주시립도서관 꽃심의 경우 강렬한 색감과 거친 붓 선이 특징인 다시마 세이조 작가의 원화 전시관이 설치돼 △비가 주룩주룩 △내가 올챙이야? △염소 시즈카의 숙연한 하루(출간예정) △송이와 꽃봉어 토토(출간예정) 등 총 6종의 원화 30점이 전시될 예정이다.

다시마 세이조 작가의 원화 전시관에서는 전시기간 중 하루 3차례 전시해설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5월 28일과 29일에는 2회에 걸쳐 '그림책과 다시마 세이조의 인생'을 주제로 작가와의 만남이 예정돼 있다.

금암도서관에서는 지난 2021년 'BBB 황금사과상'을 수상한 이명애 작가의 원화 전시관을 만날 수 있다. 이곳에는 △내일은 맑겠습니나 △휴가의 원화를 비롯해 채색 도구, 스케치 자료 등도 함께 전시된다. 또, 작가의 작품세계를 깊이 들여다볼 수 있는 전시해설 프로그램도 운영되며, 5월 4일에는 '우연한 발견 놀이하듯 확장해 가는 그림책의 세계'를 주제로 이명애 작가와 위정은 카타리출판사 편집장과 함께하는 작가와의 만남도 준비돼 있다.

전주가 주목한 그림책 작가 8명의 작품 전시 및 북 콘서트도 한 달 내내 이어진다.

이 프로그램에는 △박정섭 작가(송천도서관) △배유정 작가(물결서사) △소운경 작가(서점키퍼) △안효림 작가(청동북카페) △오세나 작가(평화도서관) △유준재 작가(인후도서관) △이기훈 작가(삼천도서관) △정진호 작가(질익언어어울)가 참여한다. 각 도서관별로 작가와 작품을 소개하는 전시를 진행하고 작가의 이야기를



전주국제그림책도서전 포스터.

들어보는 북콘서트가 진행될 예정이다.

동시에 아직 출판경험이 없는 청년 신인 작가들의 원화와 더미북을 전시하는 '청년작가전'이 금암도서관에서 열리고, 인후도서관에서는 각 나라를 대표하는 세계적인 작가 10명의 그림책 원화와 한글 그림책을 만나볼 수 있는 '전세계그림책도서전'이 개최된다.

가정의 달 5월을 맞아 온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그림책 공연도 준비돼 있다. 그림책작가가 직접 그림책을 이용한 공연과 강연을 함께 진행하는 '그림책작가 1인 극장'은 매주 토요일 전주시립도서관 꽃심을 비롯한 5개 도서관에서 진행된다. 그림책 공연으로는 △김리라 작가의 '미술 시간 미술 시간', △난주 작가의 '냥이의 이상한 하루', △미우 작가의 '공포의 새우눈', △장현정 작가의 '땀' △한기현 작가의 '잠자리 편지' 등이 준비됐다.

'제1회 전주국제그림책도서전'의 작가와의 만남, 북콘서트, 그림책 작가 1인 극장 프로그램은 전주시립도서관 누리집(lib.jeonju.go.kr)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주시 책의도시정책과 책문화사업팀(063-230-1848)로 문의하면 된다.

최라기 전시 책의도시인문교육본부장은 "그림책은 흔히 아이들이 보는 책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최근에는 오히려 그림책을 통해 어른과 위로 받는 어른들이 늘어나고 있다"면서 "전주국제그림책도서전"을 통해 그림책의 다양한 매력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윤상기자

노인 일자리 창출 '홈플러스 카페마을' 1호점 개소

전주시 · 보건복지부 · 홈플러스, 노인고용복지 증진 · 노인생산물 판로개척 등 위해 마련

노인 일자리 창출과 노인생산물 판로 개척을 위한 '홈플러스 카페마을' 1호점이 전주에 동지를 들었다.

전주시와 보건복지부, 홈플러스는 27일 홈플러스 전주호자점에서 김승수 전주시장과 김부겸 국무총리, 오영식 국무총리비서실장, 고득영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장, 김미곤 한국노인인력개발원장, 김명환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본부장, 이재훈 홈플러스 대표이사, 박효순 전주호자시니어클럽 관장(카페마을 사업기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홈플러스 카페마을' 1호점 개소식 및 업무협약을 했다.

홈플러스 카페마을은 민간협력형 노인일자리 창출 및 노인고용복지 증진, 노인생산물 판로개척 등을 위해 마련된 공간이다. 대형 유통마트와 함께하는 카페마을이 생긴 것은 지난날 경기도 용인시 이마트에 들어선 이마트 카페마을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특히 홈플러스 카페마을 1호점은 전주시가 지자체로는 최초로 정부, 대형 유통매장과 함께 시니어일자리 전국적 확산을 위한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앞으로 보건복지부는 홈플러스 카페마을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 행정



전주시와 보건복지부, 홈플러스는 27일 홈플러스 전주호자점에서 김승수 전주시장과 김부겸 국무총리, 오영식 국무총리비서실장, 고득영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장, 김미곤 한국노인인력개발원장, 김명환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본부장, 이재훈 홈플러스 대표이사, 박효순 전주호자시니어클럽 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홈플러스 카페마을' 1호점 개소식 및 업무협약을 했다.

적인 지원에 힘쓰고, 홈플러스는 고령친화제품 홍보를 위한 점포제공과 임대료 감면, 온라인 판로 지원 등 안정적인 사업운영과 조기정착을 지원하게 된다.

전주시는 고령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노인일자리 창출 및 시니어일자리 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지속적인

홍보와 행정적인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시는 유동인구가 많고 모든 세대가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인 대형 유통매장에 마련된 홈플러스 카페마을을 통해 적극적인 노인생산물 홍보가 가능해지는 것은 물론, 노인일자리 인식 개선 효과도 거둘 수 있을 것

/김윤상기자

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날 개소식에서는 카페마을 종사자와 일반고객 등이 참석한 가운데 시니어세대의 사회참여 기회 확대와 재취업 교육 등 향후 노인일자리 사업의 미래를 모색하는 '국무총리와 시니어 세대와의 대화' 간담회도 진행됐다.

고득영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장은 "정부와 지자체, 기업이 함께 협력해 지속 가능한 노인일자리 모델을 개발하는 이번 사업은 매우 뜻깊다"면서 "업무협약을 계기로 향후 보다 다양한 노인일자리를 만들어 나가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재훈 홈플러스 대표이사는 "홈플러스만의 전문성과 인프라를 활용해 지속가능한 노인일자리 만들어 많은 분께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앞으로 온라인 내에 '시니어 친화상품관'을 론칭하여, 상품의 홍보 및 판로 개척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일자리가 바로 어르신들을 위한 최고의 복지일 것"이라며 "어르신들의 경제적 독립과 자아실현에 대한 욕구 충족을 위해 양적 · 질적으로 풍부한 어르신 일자리가 많이 생겨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윤상기자

한국형 영화 효과음원 정수 전주서 만난다

시, 전주국제영화제 기간 국내 최고 전문가와 케이사운드 행사 개최

K-콘텐츠와 한국영화 음향 분야를 이끌고 있는 전문가들이 국제영화제가 열리는 전주를 찾는다.

전주시와 (재)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원장 이영로)은 제23회 전주국제영화제 기간 중 '한국형 영화 효과음원 DB구축 사업' 활성화를 위해 한국영화 음악 · 음향 전문가와 함께하는 마스터 강연과 한국형 영화 효과음원 사업의

미래 비전 도출을 위한 컨퍼런스 등으로 구성된 '케이사운드' 행사를 개최한다고 27일 밝혔다.

케이사운드 행사는 전주시가 한국형 영화 효과음원의 현재와 나아가 할 방향을 전문가들과 함께 모색하기 위해 마련했다.

먼저 영화 음악 · 음향 전문가와 함께 하는 마스터 강연은 오는 30일과 5월 1

일 이틀간 영화의 거리에서 펼쳐진다. 30일 오후 6시 1차 강연에서는 2차 송환 상영 후 포용수 사운드 슈퍼바이저의 클래스가 진행되고, 5월 1일 오전 10시 2차 강연에는 '스웬키즈' 상영 후 영화와 더불어 다양한 분야에서 최고의 음악을 만드는 김준석 감독의 클래스가 진행될 예정이다.

특히 마스터 강연의 경우 일반인에게는 다소 생소한 영화 '사운드'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시간으로, 보다 많은 관객들과 소통하기 위해 유튜브로도 생중계된다.

시는 전담 수입에 의존 중인 영화 효과음원의 국산화를 위해 지난 2020년부터 올해까지 총 42억 원을 투입해 전통소리, 자연의 소리 등 총 3만여 건의 영화 효과음원을 구축하는 '한국형 영화 효과음원 DB구축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 5월 2일과 3일 이틀간 전주 라한호텔에서 '한국형 영화 효과음원 DB구축 사업'의 발전 방향을 논의하는 컨퍼런스가 진행된다.

전주국제영화제와 공동주최하는 이번 컨퍼런스에서는 영화 '기생충'을 비롯한 영화 · 영상콘텐츠에 사용되고 있는 한국형 효과음원의 현재와 향후 방향에 대해 전문가들이 다채로운 관점에서 이야기하는 논의의 장이 펼쳐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 지난해 처음 시행된 케이사운드 스케이프 제작지원 사업의 확장과 다양한 사례의 '사운드 스케이프'에 대한 논의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올해 전주국제영화제 기간 중에는 '효과음원'에 대해 생소하거나 궁금한 관객들을 위해 전주리운지(전주 등)에서 효과음원 제작 체험 이벤트도 진행된다.

제23회 전주국제영화제는 28일 전주 등에서 열리는 개막식을 시작으로 오는 5월 7일까지 전주 일일에서 펼쳐진다.

한편 이번 케이사운드 행사는 오프라인 행사와 함께 케이사운드 라이브러리 유튜브 채널로 온라인 실시간 생중계될 예정이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재)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콘텐츠사업단 디지털미디어팀(063-281-4183)으로 문의하면 된다.

/김윤상 기자

케이사운드 라이브러리
K-SOUND LIBRARY

영화 상영 후 유튜브 생중계
마스터클래스 K-SOUND LIBRARY MASTER CLASS

한국 다류엔터테인먼트 사운드
4.30. Sat. 20:40 (70min)
이소희 | 포용수 사운드슈퍼바이저(가짜말투)

영화와 영상 그리고 음악
5.1. Sun. 12:05 (70min)
이소희 | 김준석 음악감독(가짜말투)

전주시, 종합 · 개인지방소득세 합동도움창구 운영

온라인 세금 납부에 어려움을 겪는 전주시민들을 위해 5월 한 달 간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는 창구가 운영된다.

전주시는 5월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 확정 신고의 달을 맞아 오

는 5월 2일부터 31일까지 완산구청 6층 회의실에서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동시에 신고하는 '종합 · 개인지방소득세 합동도움창구'를 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

모두채움신고서를 받은 신고납부대

상자들은 이 기간 동안 세무서와 구청 중 한 곳을 방문하여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동시에 신고할 수 있다.

방문 신고 대신 온라인 전자신고와 모바일 신고(스톡스)의 방법을 통해 비대면 전자신고도 가능하다.

이용 방법은 국제청 홈페이지 또는 스톡스 앱에 접속해 종합소득세를 신고

/김윤상기자

한 후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버튼을 클릭하면 지방세 위탁으로 자동 연결되는 방식이다.

간재원 전주시 세정과장은 "합동도움창구 방문신고 대상자에 대해 철저한 방역수칙을 이행할 것"이라며 "코로나 19 예방을 위해 가급적 비대면 전자신고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김윤상기자

유충구제 방역 위한 특별기동반 편성 · 운영

전주시보건소, 모기 사전 박멸 위해 추진

전주시가 시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모기 사전 박멸에 나선다.

전주시보건소(소장 김신선)는 말라리아와 일본뇌염, 지카 바이러스 등 감염병 매개체인 모기 방역을 위해 정화조와 복개하천 등을 대상으로 유충구제 방역 활동을 벌인다고 27일 밝혔다.

보건소는 방역기동반 2팀 4명을 구성해 유충의 주요 서식처인 정화조와 복개하천 등 주요 민원 발생지역에 유충구제 약품을 살포하고, 잔류분수 소독을 실시하는 등 방역활동을 적극 시행할 계획이다.

특히 주택가와 밀집한 복개하천과 주변 하수구를 집중 방역기로 했다. 이는 동절기와 해빙기에는 모기가 추위를 피해 지하 하수구와 정화조 등 제한된

곳에 서식해 효율적인 방역작업이 가능하고, 모기 유충 1마리를 없애면 성충 500마리를 박멸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기 때문이다.

보건소는 또 모기와 깔따구 등이 발생하기 쉬운 환경인 수변공원에 대해서는 시민들이 생활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모기유충과 깔따구만 선택적으로 구제할 수 있는 미생물 제제를 투입키로 했다.

김신선 전주시보건소장은 "모기유충구제사업을 통해 여름철 발생 모기를 미리 박멸해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라며 "시민들께서도 집 주변 물웅덩이 제거 등 자발적 방역에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윤상기자

전북 관광설명회서 전주 관광객 유치 도모

관광사업체 대상 관광자원 홍보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가 전면 해제된 가운데 전주시가 수도권 관광객 유치를 위한 홍보활동에 나섰다.

시는 27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전북 관광설명회에서 관광사업체 대상으로 전주 주요 관광자원 홍보 및 관광객 유치를 위한 사업을 소개하는 홍보 활동을 펼쳤다.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전면 해제되면서 관광산업이 회복될 것이라는

기대감 속에서 열린 이날 관광설명회에는 여행사를 비롯한 관광전문기자, 외국인 인플루언서 등 총 300여 명이 참석했다.

시는 이날 행사장을 방문한 관광업계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국내외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사업을 적극 소개하고, △전주대표여행상품 △드라마 촬영지와 연계한 여행상품 △시군 연계상품 등을 자세히 소개하는 등 글로벌 관광도시로서 전주의 매력을 알렸다.

/김윤상 기자